

[TV]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details including time, title, and description.

MBC 드라마·예능 프로 시청률 고공행진

'누나' '거침 없이 하이킥' '무한도전' 등 시청자들에게 인기



이 하이킥'도 마찬가지다. 12~13%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거침없이 하이킥'은 KBS1 '열아홉 순정'이 끝나고 '하늘만큼 땅만큼'이 첫 방송된 15일 17.9%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MBC가 주말 밤 9시40분 방송하는 '사랑을 얻은 뒤'도 분방한 주제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인소문을 타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외과사의 성공을 향한 질주를 그리는 '하얀 거탑'은 보기 드물게 전문직 드라마라는 기본 틀에 충실하면서 김병민, 이경길, 김창완 등 인기자들의 개성 강한 연기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MBC의 순항이 눈에 띈다.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되는 '무한도전'(사자)은 유재석, 정형돈, 정준하 등 여섯 출연자의 솔직한 입담과 개그에 힘입어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보기 드문 22.2%의 시청률로 일일 시청률 1위에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야' 역시 '사모님' 등의 유명 코너와 직전 방송되는 '주몽'의 인기 덕에 15% 안팎의 시청률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MBC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이 같은 선전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몽'으로 활로를 뚫은 MBC로서는 반가운 일. 그러나 타사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막을 내리는 시점이라 반쪽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MBC가 이를 발판 삼아 약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가 호평받는 드라마와 이목을 끄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타사 인기 드라마 종영의 반사 효과까지 주목하고 있다.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는 시청률로 고전하던 주말극 '누나'는 40%대의 시청률을 넘나들던 KBS2 '소문난 칠공주' 종영 이후 가파르게 시청률이 올랐다.

'소문난 칠공주' 후속작 '행복한 여자'가 첫 방송에서 시청률 20%를 넘기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누나'는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전세를 뒤집어 '소문난 칠공주' 종영의 반사이익을 끌어왔다.

타사 인기 드라마 종영의 반사 효과 덕을 보는 것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도 마찬가지다. 12~13%의 시청률을 기록하던 '거침없이 하이킥'은 KBS1 '열아홉 순정'이 끝나고 '하늘만큼 땅만큼'이 첫 방송된 15일 17.9%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Advertisement for 'Living TV' featuring Kim Hyun-yeong's travel show, including a photo of him and promotional text.

케이블·위성TV 18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지방방송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TBN 교토방송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BBS 불교방송 logo and contact information.